

**제목 Theme; 예수라 하라 Call Name Jesus**

**본문 Scripture: 누가복음 1:26-38 절**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Now 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in Galilee called Nazareth,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to a virgin engag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descendants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And coming in, he said to her, "Greetings,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But she was very perplexed at this statement, and kept pondering what kind of salutation this was.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31. 보라 네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Mary said to the angel, "How can this be, since I am a virgin?"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The angel answered and said to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for that reason the holy Child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And behold, even your relative Elizabeth has also conceived a son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called barren is now in her sixth month.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And Mary said, "Behold, the bondslave of the Lord; may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준비한 것에 반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으로 실제 인물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로마 황제에 의하여 임명된 정치적으로 권위가 있는 인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대표적인 복음서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말하기 전에 예수님 이전에 인간의 힘으로 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을 탄생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게 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게 되는 성육신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아내 엘리자벳의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임신을 한지 여섯째 달이 될 때 그의 친족 중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6 절 이하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음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천사는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신 말은 “앞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할 것을 아시고 28 절에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위로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9 절에 마리아가 어찌할 줄 몰라 놀라며 생각할 때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말하며 이미 임태를 하였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는 황당한 소식이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한 마리아에게 31 절부터 33 절까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야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며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약속이 자신에게 내려진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34 절에서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35 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질문을 대답해 주셨는데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려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 주시게 됩니다.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처녀 마리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지만 그 능력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고 두려워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36 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믿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친족 중에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 엘리사벳을 말해주니 자신에게 일어 난 수태고지를 받아 들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남자를 가까이 해 본 적이 없는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알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38 절에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은 마리아가 꿈에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 가브리엘을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가 죽어서 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더 가까이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손님으로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37** 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 이루어 진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27 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1** 열왕기상 **19:11**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2** 요한복음 **20:19** 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 마태복음 **14:14** 절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30 절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1** 누가복음 **7:34** 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마태복음 **11:19** 절)

**2** 누가복음 **5:8** 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쥐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3** 마태복음 **8:5-7** 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38 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 말라기 1:1 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 사무엘하 23:2 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 로마서 15:18 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